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를 위한 ‘건축안전팀’ 신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9.3.19.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 내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 용산 상가건물 붕괴(2018.6.), 강남 대종빌딩 균열(2018.12.)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지는 것에 더해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팀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약 37%에 달하고, 2020년까지 40%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 보강,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 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금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안전팀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이 대상으로, 2019년 9.6억 원을 투입하여 총 72개동의 화재성능 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